

우리가 솔선수범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불황을 타개하자



강동준

전남동부낙농축협 자조금 추진위원

낙농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낙농가들은 원유생산에만 전력을 다해야 되는줄 알았는데 판매, 홍보 및 소비까지 해야 하는가?

때이던 IMF 환파로 인하여 소값 폭락과 사료값 인상, 우유소비 부진에 따른 낙농불황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때가 때이던 만큼 현재 전국에 남아도는 우유의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유생산을 가급적 줄이고 우유홍보 및 소비를 확대해야 함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소비자의 쏟아지는 여론에 밀려 낙농가의 원유가격을 인하시켜 제품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5%이상의 원유가격 인하 방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점에서 원유가격이 인하된다면 우리 낙농가는 도산하게 될 것이 뻔한 사실이다.

우리 낙농가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으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유소비 촉진 및 홍보 활동에 스스로 앞장서기로 하고 이번 정부의

잘못된 원유값 인하방침을 당분간 유보 시키기로 하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조금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낙농가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에 모든 낙농가의 유대에서 일정액의 기금을 거출하여 땀 흘려 생산된 신선한 우리 우유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 건강 세미나, 요리강습, 판촉활동, 매스컴 홍보 및 소비시장을 확대하자는 자조금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낙농가가 피땀흘려 생산된 원유의 유대에서 조금씩 모은 낙농자조금을 우유소비 확대는 물론 정부의 원유대 인하 방침을 차단시키기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든 낙농가들이 솔선 수범하여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유업체도 낙농가가 부담금 만큼 동참을 약속해 오고 정부도 낙농가 조성 금액의 절반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낙농가와 유업체,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소비확대등으로 불황타개에 동

“

우리나라 모든 낙농가들이 솔선 수범하여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유업체도 낙농가가 부담금 만큼 동참을 약속해 오고 정부도 낙농가 조성 금액의 절반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낙농가와 유업체,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소비확대등으로 불황타개에 동참함으로써 보다 빨리 낙농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함으로써 보다 빨리 낙농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낙농자조금은 20억원을 목표로 1만7천호 낙농가의 피땀흘린 유대에서 일정기간 조금씩 조성하게 되며 용도는 지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농가, 유업체, 축협, 정부의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어 우유소비 확대에 커다란 힘이 될것이다.

우리 1만7천호 낙농가는 자조금을 조성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올바른 용도로 쓰여지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이때 자조금을 공제하는데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낙농을 살리자는 자구대책인 점을 이해하여 원유 kg당 5원씩 3개월간 유대에서 자조금을 각출하기로 하였다.

낙농불황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한 농가도 바짐없이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 갑시다. ☺